여 "모든 현안 털고 가자" 야 "반값등록금 논의 먼저"

8월국회 정치권 불꽃공방 예고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과 현안들을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북한인권법,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여야의 불꽃 튀는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들을 털고 가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핵심 인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야당과 최대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다음주가 고비"라며 "미국 의회에서 상정 및 처리될 경우 우리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인 채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 처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의 동상이몽 속에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위한 협의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다지기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어 8월 임시국회 개최를 위한 동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수만 6400여건으로, 이들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여야는 조속히 8월 국회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합의해줄 수 없다"면서 "여야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음달 4일과 6일 각각 예정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여야 입장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8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생 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발생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국은 더욱 어지러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뜨는 문재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야권통합 원탁회의를 마치고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많은 취재진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통합 門여는 문재인

'원탁회의' 출범 이해찬·문성근씨 등과 참석 대통합 촉구

민주진보 진영의 각계 원로와 단체 대표들이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통합의 한목소리를 내고 나서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등 시민사회 및 종교계 원로와 시민정치운동단체 대표 21명은 26일 국회에서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를 출범하고 야권의 통합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의 '일대일 대결 구도' 성사를 위해 야권을 강하게 추동해 나갈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진영 원로들과 시민사회 진영 각계인사들이 원탁회의를 꾸려 야권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통합 논의가 각개약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해쳐 모여' 과정에서 진보진영 원로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지기반과 정체성, 노선에서 확연한 차이를 갖는 정당 간의 통합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편, 야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날 원탁회의에 참석,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이날 "시민사회와 원로들이 모여 2013년 이후의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12년 승리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한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2012년 승리를 위해 범야권의 대통합이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끼는 한편, 대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갈게요"라며 자리를 떴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이사장이 야권 통합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뒤 내년 총선에서 부산 및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직접 출마하거나 후보들의 선거를 지원, 바람을 일으킨다면 '문재인 대망론'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광주·전남위원장 안갯속

이정현 의원 "자리 차지 호남에 도움안돼"

서울시당위원장엔 이종구 의원 당선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재선의 이종구(61·강남갑·사진) 의원이 26일 선출되는 등 16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호남지역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아직 방향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른 지역은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를 7월말로 연기하면서 경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호남만 지난 4일로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당이 직무대행을 지명해 경선을 할지 아니면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는 경선을 할지 등 어느 것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김정권 사무총장은 최근 추대 형식으로 이정현 의원에게 광주시당 위원장을 권유했으나 이 의원이 "비례대표를 하면서 최고위원, 시당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그렇지않아도 자리가 없는 호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사한 것을 전해졌다.

이처럼 호남지역 시·도당 위원장 선정이 난항을 겪자 다음달 6일 이춘식 제2사무부총장과 광주·전남지역 당협위원장 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이날 26일 오후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이종구 의원은 588표를 얻어 542표를 얻은 전여옥 의원을 46표 차로 누르고 새 서울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중립 성향의 이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원을, 정몽준 전 대표와 가까운 전 의원은 친이(친이명박)계의 지지를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보성 출신 이중재 전 의원의 아들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 상임위원 등을 지낸 데 이어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통합정신 계승 내년 대선 승리를"

천정배 최고위원 등 서거 2주년 대토론회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앞두고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2 대선승리, DJ정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과 ㈔동북아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유지인 '통합의 정신'을 계승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 중 꼭 따라야 하는 게 민주진보세력의 통합이고, 그것이 정권교체의 길"이라며 "김대중 정신을 몸을 바쳐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을) 때려잡아서 없애야 한다고 했을 때 햇볕을 쬐어 변화시키고자 했다"며 서해교전을 예로 들어 "북한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엄정하게 대처했고, 그게 바로 원칙있는 포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있는 포용정책' 발언은 "햇볕정책에 수정을 가하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천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부끄러운 말이지만 김 전 대통령 이후 야권이 표류하고 있고 혼란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할 때 야권 통합과 연대가 되고 총선에서 180~200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선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가장 바란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꼭 이겨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용화 "지역발전 위한 3대 역할할 것"

한나라 광주·전남발전특위원장 맡아 예산확보 등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전남 지역발전특별위원장은 26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와 지역 공약개발, 지역여론 수렴 등 3가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 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한나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 취약성이 있고 '지역홀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특위가 제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 사무처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정부 지원 요청사업을 들었다"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F1대회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인만큼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한뒤 "다만 전남도의 예산과 동력이 F1대회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호남지역에서 15%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후보들이 출마해서 지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매산건축철거전문
북구 신안동 크라운제과 옆
상가, 건물, 집수리, 폐기물처리, 진토, 모래, 자갈
25톤덤프, 방수 주택철거 전문
☎062-528-700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 대 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동 · 서양화 매매 무료감정
고급표구 족자제작
☎062-232-4784

건강리듬다이어트
북구 두암동 주공단지@ 상가 202호
10회 3만원 반식욕무료, 무료체지방측정
한달 5kg~10kg 감량가능, 피로해소, 피부미용
☎010-5647-0589

하얀그릇백화점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4거리 우산공원 맞은편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뷔페, 혼수용, 답례품, 수입품
개업 상담 컨설팅 전문
대표 김 정 동
☎062-264-7071

백호유통
북구 각화동 무등파크 정문옆
롯데, 해태, 동아오츠카, 각종 음료 및 드링크
도매전문점
☎062-251-3948

유성환경기술
매월동 공구상가 5동 201호
상하수도 설비 기술자 구인
(유 경험자우대) 급여 상담 후 결정
☎062-603-1819

빛고을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대원시장
직원수시모집, 사다리차, 스카이 보유
24시간 상담가능 가능
대표 이 광 용
☎062-525-2442

기담철학원
북구 둥미동 594-23 화정사우나 옆
사주(음권,양권) 학 쉽고 빠르게 가르쳐 드립니다.
기담 배 완 식
☎062-263-0208

소랑소랑(각화점)
북구 각화동 180-2 각화주공apt 입구
참숯구이 소갈비살 19,500원
☎062-264-0092

탑 공간 창조기업
북구 풍향동 e마트 건너편
체인점 개설상담 및 인테리어 전문업체
☎010-3627-3293

드림텔레콤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 인근
SK, KT, LGU+ 각사 핸드폰 신규 가입및 기기 변경
번호이동, 효도폰, 스마트폰 가입 전문점,
요금 수납및 각종 업무대행
☎062-262-9010

녹다
동구 대의동 17-2 동부경찰서 사거리 앞
웨딩, 돌잔치, 커플, 약혼식, 메이크업
☎062-222-2330

빅풋코리아전자담배
북구 오치동 농협 오치 지점 옆
신상품 전자담배 세트 5만원
대표 안 대 환
☎062-262-0999

윤영식당
동구 불로동 히딩크호텔 1층
갈치전문
대표 유 종 임
☎062-224-0268

포베이
광산동 78-41 충장로1가 입구 2층
베트남 쌀국수 샤브샤브 전문점
대표 강 호 창
☎062-221-1900

올리브영
동구 충장로1가
대표 김 범
☎010-4082-1307

행운근로자 대기소
북구 풍향동 E마트 건너편
일일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시모집, 기공, 조공 항시대기
청소 대행전문업체
☎062-531-3113

영신아구찜 곱창구이
북구 용봉동 도로교통공단 옆
김치찌개, 청국장, 동태탕
아구찜, 곱창구이 전문
☎062-528-8288

제일식당
북구 신안동 제일오피스텔1층
백반전문
대표 전 혜 란
☎062-525-1003

영신아구찜곱창구이
북구 용봉동 도로교통공단 옆
김치찌개, 청국장, 동태탕,
아구찜, 곱창구이 전문
☎062-528-8288

박가네들깨랑팥이랑쥑석냉면칼국수
서구화정4동사무소 옆
들깨랑, 바지락칼국수, 팥죽메생이, 해물전
대표 박 종 수
☎062-374-5552

성인쇼파
북구 두암동 청아맨션 정문 옆
가정용, 영업용, 쇼파,식탁의자, 천갈이
수리 및 주문제작, 도·소매전문
☎062-268-0974

Rinnai(린나이무등상사)
동구 학동 시외버스정류장 맞은편 휴먼시아 입구 옆
가스, 기름보일러, 순간온수기, 전기온수기, 분배기교체
보일러배관청소, 업소용기구, 도·소매 전문
대표 정 승 채
☎062-223-3652

진영소주방
북구 오치동 상설시장 apt 입구
홍어찜, 각종전문점
대표 추 명 순
☎062-261-8652

고향국밥
북구 오치동 오치삼익1차 APT 옆
순대국밥부터 모든 메뉴가 다 갖추어 있습니다.
대표 홍 현 식
☎062-265-2187